



## 본회 울산 및 김제지회 탄생

— 지회수 44개로 늘어, 김제지회는 창립총회 개최 —

본회 울산지회와 김제지회가 닦을 올렸다.

울산지회는 지난 7월말 본회에 전화통지를 통해 지회설립을 알려왔다.

울산지회는 현재까지 '울산양륙회'란 명칭으로 자체 모임활동을 실시해왔으며 본회 지회로의 전환을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회 초대지회장으로 선임된 심신석지회장은 "자체 모임을 통해 협회 산하 울산지회로의 전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창립총회는 실시치 않았다"고 말하며 "울산지회로의 전환을 발판 삼아 국내 양륙산업 발전과 울산 지역 양륙산업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본회 김제지회는 지난 8월19일 김제시 소재 백송회관에서 지역 양륙인 및 내외 귀빈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창립총회를 갖고 본회 44번째 지회로의 출발을 선포했다.

김제지회 초대지회장에 선임된 홍상철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륙산업 발전의 기초는 의지와 뜻이 한곳으로 집결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전제하고 "김

제지회 창립이 지역 양륙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모든 회원들이 뜻과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김제지회를 포함, 울들어 신규지회가 9개 창립됐다"고 설명하며 "향후로도 지속적인 시군단위별 지회창립에 역점을 뒤 양륙인을 결집시킬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양륙인 권익 보호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장현수 소장을 비롯, 김제시 농림축산과 고대석 과장, 김제축협 김덕수 지부장, 한농연 김제지부 이원엽 회장, 양돈협회 김제지부 최용배 지회장 등이 참석, 양륙협 김제지회 창립을 축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한국양륙**

### ▶ 울산지회

- 심신석 지회장 : 052) 264-5866
- 김인한 사무장 : 052) 264-2039

### ▶ 김제지회

- 홍상철 지회장 : 063) 546-2717
- 이재영 사무장 : 063) 546-2215